

한국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정책과 실행

이금연 (수락고등학교 교장)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목 차

I.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현황

1.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2. 공교육 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흐름

II.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안의 세계시민교육

1. 2015 국가 교육과정 인간상 및 핵심역량
2.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목표
3. 세계시민교육 연계 교과 활동을 위한 교과서 분석
4. 세계시민교육 인정교과서 개발 · 보급 (2017)

III. 서울시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전략, 우수 사례

1. 학교별 세계시민교육 자율 시행 지원
2. 세계시민교육 교원역량 제고 및 활성화 기반 구축
3.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4. 다문화교육 주요 과제와 실제
5. 학교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우수 사례

IV. 국제개발기관의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접근 및 확산을 위한 제언

1. 학교의 나눔교육 및 국제구호활동 중심으로 접근 추세
2. 유네스코학교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핵심 주제 지속 추진
3. 개발교육기관의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접근 및 확산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요약

세계시민교육은 미래 지향적이고 필연적인 방향이다. 지구촌 시대는 학생이 한 국가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성장하도록 요구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핵심 역량으로 제시한다. 또한 민주 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을 범교과 학습주제로 주문하고 있다.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모든 학교급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전개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첫째, 학교별 세계시민교육 자율 시행 지원, 둘째, 세계시민교육 교원역량 강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 셋째,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그리고 다문화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문기관 협약, 교원연수, 인정교과서 보급, 정책지원학교 지정·운영, 학습동아리 지원, 유네스코학교 지원 등 학교 현장에 구체적 지원을 하고 있다. 국제개발기관의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접근 및 확산을 위해서,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간 학교지원 협의체 운영, 교육과정 개정 논의 참여, 교원연수 프로그램 연계 운영, 세계시민교육 학교컨설팅 및 국내·외 체험 프로그램 협의와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I.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현황

1.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오늘날 지구촌은 교통, 자유무역,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 등으로 개인과 지역 공동체, 국가들 사이의 관계가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고 상호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3.1%인 약 2억 3천만 명은 이민자다. 한 개인의 삶이 자신이 속한 나라를 넘어 다른 나라와 지구촌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되고 있다. 국가 간 인구 이동 증가 현상은 주로 경제적 요인(산업, 서비스, 자원 등), 문화적 요인(노예 이동, 난민 등)과 환경적 요인(거주 지역 환경파괴 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다.

현재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도 빠르게 변화·다양화되고 있다. 1990년대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이주 2세대 및 자국 가족들의 국내 입국이 증가하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 수는 전체 한국 인구의 3%를 넘어서 다문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15년 1,741,919명,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 행정자치부). 아울러 해외로 이주한 한인 동포는 현재 176개국 700여만 명에 이르고 있다.

또한, 지구촌 곳곳에서 일상적으로 겪는 기후변동, 환경파괴, 생물 다양성 훼손, 경제 불평등, 제3세계의 빈곤과 기아 문제, 그리고 정치·종교적 갈등과 분쟁 등은 이미 개별 국가의 국경선을 넘어 전 지구촌의 문제가 되고 있다. 국제협력 없이는 인류의 평화와 번영 그리고 생존이 불가능한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지속가능한 지구의 미래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인 관점에서 인류 모두의 사고와 행동 양식의 변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이제 교육당국과 학교는 학생이 한 국가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계시민으로서 자신을 인식하고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학생들이 지역과 국가의 경계선을 넘어서 지구촌 구성원으로서 공존, 상생, 국제협력, 문화 다양성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 인권과 평화 등 인류 보편의 가치를 내재화하고 지역과 세계의 문제와 갈등 해결에 참여하고 실천할 수 있는 미래 역량을 갖추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2. 공교육 내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및 흐름

2015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서 추구하는 인간상(像) 중에서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제I장

개발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과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세계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표현은 학생의 세계시민성 함양이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임을 말한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10개로 제시된 범교과 학습주제 중에서 세계시민성 함양과 밀접한 학습주제로는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교육부와 교육청도 학교의 세계시민교육 인식과 접근성 확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제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국제협력,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선발 및 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전담팀을 신설하고 세계시민교육 교원연수, 교원 및 학생동아리 지원, 인정교과서 개발·보급,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 협력 추진, 연구학교, 특별지원학교 등과 같은 정책학교 지원, 유네스코학교 지원, 일반 학교 프로그램 지원, 다문화교육 등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인 유네스코 한국위원회(Kore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KNCU) (2010.5.), 월드비전(World Vision) (2015.2.),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2015.2.)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Asia-Pacific Centre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APCEIU), 한국국제협력단 ODA교육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등 전문기관은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 등에 노력하고 있다. 학교는 자율적으로 NGO들과 연계하여 구호봉사 및 나눔 활동 등 세계시민성 함양을 추진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필연적인 방향이다. 일반 학교에서도 각종 대회, 캠프, 워크숍, 체험활동 등을 통해 지구촌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학교급별로 교과와 체험중심의 창의적 체험활동, 중학교의 자유학기제 시행, 실질적으로 대학입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확대와 맞물려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학교의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은 확산하는 추세이다. 2017년 초·중·고에 보급된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인정교과서는 세계시민교육 자료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학생의 선택 희망과 학교 여건을 반영하여 교사들은 학습주제를 중심으로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여 세계시민교육 관련 활동을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II. 2015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 안의 세계시민교육

1. 2015 국가 교육과정 인간상 및 핵심역량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총론에서 추구하는 4가지 인간상을 제시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도 ‘진로를 개척하는 사람,’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사람,’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표현된 바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 인간상을 살펴보면 첫째,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자주적인 사람,’ 둘째,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인 사람,’ 셋째,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교양 있는 사람,’ 넷째,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세계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6개의 핵심역량을 신설하여 명시하고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구체적으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핵심역량은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 사고역량,’ ‘심미적 감성역량’과 함께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과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을 들고 있다.

2.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 학교급별 교육목표

2015 개정 교육과정은 2017학년도 초등학교 1~2학년부터 단계적으로 시작하여 2020학년도에 중·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두 적용을 받는다. 학교급별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및 기초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자신의 소중함, 건강한 생활 습관, 상상력,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과 규칙과 질서를 지키고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돕고 배려하는 태도를 기르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자아존중감, 삶의 방향과 진로 탐색, 도전정신, 창의적 사고력,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가치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 그리고 다양한 소통

제I장

개발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능력을 기르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개척 능력과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 평생학습의 기본 역량과 태도, 지식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 문제 해결,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 대처,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데 세계시민성 함양과 관련한 교육목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것이 아니다. 2009 개정 교육과정부터 추구해야 할 인간상 중의 하나는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이미 명시된 바 있다. ‘세계시민’이라는 용어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보통명사로 새롭게 등장하며 ‘공동체 의식을 가진 세계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다.

아울러,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세분화되어 제시된 39개의 범교과 학습주제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시대 흐름을 반영하여 10개의 범교과 학습 대주제로 대폭 통합·삭제·정리되었다. 이제 학교는 그간 너무 많은 범교과 학습주제 운영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자유롭게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국제이해교육은 다문화교육으로 물보호교육은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통합되고 있다.

3. 세계시민교육 연계 교과 활동을 위한 교과서 분석

각 교과 교육과정에서 독립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학습 요소와 주제를 찾아서 연결하고 묶어내는 것은 쉽지 않다. 선생님들의 관심과 노력을 요구한다. 뜻을 함께하는 교사들의 연구, 토론과 협력과정이 필수적이다. 지난 2016년 서울 안천초등학교에서 세계시민교육 연계 교과활동을 위하여 5학년 교과서를 분석한 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2016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운영 보고서 (서울 안천초)

교과	단원		관련 영역
도덕	4. 정보사회에서의 올바른 생활		세계화와 국제협력
	6.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		인권과 차별 없는 사회
국어	1학기	2. 토의의 절차와 방법	평화와 갈등 해결

교과	단원		관련 영역
		4. 작품에 대한 생각	문화 다양성과 존중
		6. 말의 영향	평화와 갈등 해결
미술	1. 생활 속 미술의 발견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
	2. 소통과 디자인		문화 다양성과 존중
	5. 전통문화와 다문화		문화 다양성과 존중
사회	1학기	2.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
		4. 우리 사회의 과제와 문화	인권과 차별 없는 사회
과학		3. 식물의 구조와 기능	지속가능발전과 환경보전
음악		1. 음악으로 여는 마음	평화와 갈등 해결
		3. 음악이 가득한 세상	평화와 갈등 해결
		4. 음악으로 떠나는 여행	문화 다양성과 존중
체육		3. 경쟁활동	세계화와 국제협력
		4. 표현활동	문화 다양성과 존중
영어		1. Where are you from?	문화 다양성과 존중
		2. I water the tree at 7 o'clock	문화 다양성과 존중
		3. Who's calling, please?	문화 다양성과 존중
		4. What's wrong?	문화 다양성과 존중

출처: 서울 안천초등학교 (2016)

다음으로 2016년 해화여자고등학교의 교과 수업활동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은 개별교과 형태로 또는 관련 있는 2~3개의 교과가 융합하여 실시하였으며 주제와 활동 사례는 표와 같다.

〈표 2〉 2016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운영 보고서 (해화여고)

교과	수업 주제 및 활동 사례	학년
사회문화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교육	3
영어 + 법과 정치	이주노동자를 통해 본 우리의 현실	2
논술(글쓰기 수업과 연계한 영화 제작)	학생들이 모둠을 구성하여 인권 등을 주제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연출과 연기를 맡아 영화를 제작·발표함(8시간)	1
경제 + 국어	도서관에서 경제를 만나다 (사회적 경제를 주제로 한 글쓰기 수업)	2
경제	세계시장과 한국 경제 (빛나는 다이아몬드의 불편한 진실)	2
영어 + 경제	공정무역 초콜릿에 대한 영어 광고 제작	2

출처: 해화여자고등학교 (2016)

제I장

개발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4. 세계시민교육 인정교과서 개발보급(2017)

앞에서 제시한 <표 1> 과 <표 2> 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 교육과정 교과에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습주제나 사례 등은 다양한 수준으로 모든 학교에서 다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모든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핵심역량과 교육목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이해, 태도, 방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 2015년 세계교육포럼 이후 학교의 세계시민교육은 확산하는 추세이며 빈곤, 기아, 환경, 에너지 문제 등 다양한 지구촌 문제 극복을 위한 청소년의 세계시민의식 필요성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독립적으로 편찬된 세계시민교육 교과용 도서는 없는 실정이었다. 학교는 사회, 도덕(윤리), 국어, 과학 등 각 교과에 분산된 세계시민교육 학습주제를 찾아 재구성해야 하는 등 체계적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존재했다.

2015년 수도권 4개 교육청(서울, 경기, 강원, 인천)은 세계시민교육 업무협약을 맺고 학교에서 교원들이 교과, 교양,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 인정교과서를 개발에 착수하여 2017년 3월 학교급별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인정교과서를 보급하였다. 교과서 내용은 시민으로 생각하고 생활하는 데 필요한 주제로 구성하였다. 인권, 선거, 평등, 다양성, 평화, 연대, 환경, 민주주의, 노동, 미디어, 참여 등 민주시민 교육의 핵심 분야를 선정하고 각 주제마다 단계별 내면화 과정을 거쳐서 주제로서 인식 범위를 확장하도록 하였다. 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에 교과서 2권씩을 배부하고 세계시민·다문화교육 정책학교(연구학교, 모델학교, 특별지원학교 등)에 필요한 수량을 배부하였다. 인정교과서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활용방안(예시)은 다음 표와 같다.

<표 3> 2017 세계시민교육 기본 계획의 인정교과서 활용방안(예시)

	활용방안
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과 단원별 연계 프로젝트 학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어(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 텍스트) ↔ 세계시민(전 단원) 국어(의견, 토의) ↔ 세계시민(5단원 :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요) 국/사/과/도덕/실과/미술 수업 후 관련 주제자료 및 활동지 활용 창의적 체험활동 하위 영역과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당 1시간씩 '세계시민교육' 수업 배정 예) 자율활동, 동아리(학술활동 : 사회조사, 탐사, 다문화 탐구 등) 범교과 학습주제 및 자기주도적 학습과 통합 운영 체험학습 활동지로 편성운영

	활용방안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택’ 교과(군) 편성·운영 가능(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학년 34시간 배정 → ‘세계시민교육’ 교과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 보건, 진로와 직업, 체육, 예술(음악/미술)과목은 8과목 이내에서 제외하여 편성할 수 있음 – 범교과 학습주제 활용(민주시민, 환경, 인권, 다문화교육 등) • 계기교육 자료 활용 : 기념일(세계평화의 날, 문화 다양성의 날 등) • 학생동아리 활동과 연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교양’ 교과(군) 편성·운영 가능(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단위 배정 → ‘세계시민교육’ 교과 선택 • 독서·토론·논술교육 관련 유용한 텍스트로 활용 • 범교과 학습주제 활용(민주시민, 환경, 인권, 다문화교육, 논술 등) • 계기교육 자료 활용 : 기념일(세계평화의 날, 문화 다양성의 날 등) • 학생동아리 활동과 연계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7)

제I장

개발협력이슈

제II장

제III장

Ⅲ. 서울시교육청의 세계시민교육 정책, 전략, 우수 사례

시교육청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중점과제 안의 세부사업의 하나로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2015년 세계시민교육 전담팀 (장학관 1명 포함 4명)을 신설하여 세계시민교육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하고 학교의 관련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은 전 세계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실천하는 교육이다. 시교육청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수용능력 향상을 위한 환경조성과 글로벌 이슈들에 대한 대응역량을 기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2017년 세계시민교육 기본 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핵심정책을 살펴보면 첫째, 학교별 세계시민교육 자율 시행 지원, 둘째, 세계시민교육 교원역량 강화 및 활성화 기반 마련, 셋째,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1. 학교별 세계시민교육 자율 시행 지원

1)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세계시민교육 실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범교과 학습주제로서 세계시민교육이라는 용어 자체는 찾기 힘들다. 세계시민성 함양과 밀접한 범교과 학습주제로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환경교육, 물보호교육, 다문화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국제이해교육, 양성평등교육이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각 학교에서는 이들 학습주제를 다양한 수준으로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한다. 초등학교의 경우 교과와 통합하여 운영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고,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 선택 프로그램과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과 고등학교에서는 교과별 융합수업, 생활·교양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운영할 수 있다.

운영 방법으로는 사회, 과학, 영어, 세계사, 경제, 기술·가정, 국어, 체육, 예술 등 다양한 교과에서 교과협의회를 통해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과 간 협력학습, 프로젝트학습 등을 실시한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 시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 연계하거나 기 발간 자료인 『교실에서 만나는 세계시민교육』 (서울시교육청, 2016)과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경기도교육청, 2017)을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계기교육 시 각종 UN 기념일¹⁾을 활용할 수도 있다.

2) 세계시민교육 학습동아리 지원

시교육청은 학교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해 학교선택제 공모사업의 하나로써 세계시민교육 교원 및 학생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다. 2017년에는 학교별 또는 학교간 연합인 교원 동아리 30팀과 학교별로 지도교사 1명씩을 포함하여 구성된 학생동아리 70팀을 예상하고 있다. 운영 주제로는 평화, 인권, 환경, 다문화, 세계화, 경제정의, 지역고유문화 등이다. 운영 방법상으로 NGO와 연계하거나 지도교사 상설 동아리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 주요 활용 내용으로는 학교, 지역사회차원에서 마을축제, 캠페인, 봉사 등과 같은 행사 기획 및 참여, 교수·학습지도안, PPT, UCC 등의 자료 제작, 그리고 특강 및 워크숍 등과 같은 자율연수 운영을 진행할 수 있다.

3) 11개 교육지원청 단위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

서울시의 11개 교육지원청 단위로 지역청 관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토론회, 특강, 체험 캠프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내 학교별 세계시민교육 실천 사례, NGO 연계 프로그램, 인정교과서 활용방안 등을 교류하고 공감대를 확산하고 있다. 또한,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인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과 행사 참여를 지원한다. 아울러 공교육 현장에서의 세계시민교육 우수 사례 발굴 및 전파를 위해 우수학교 및 유공교원 표창 및 사례집 제작 및 보급(2017.12.~2018.2.)을 계획하고 있다.

2. 세계시민교육 교원역량 제고 및 활성화 기반 구축

1) 세계시민교육 초·중등교원 연수

학생의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서는 다양한 수준과 방법으로 세계시민교육을 디자인하고 재구성하는 교사의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모든 자격 연수 대상자 연수과정에 일정한 세계시민교육 시간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소양과목으로서 세계시민성 함양 및 수업지도안 개발 등을 내용으로 자격연수(교장, 교감, 1정, 부전공) 대상자, 희망 교원, 신규 임용 예정교사를 대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과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에서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다양한 직무연수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2017년

1) 각 UN 기념일의 명칭과 날짜는 다음과 같다. 물의 날(3. 22), 문화 다양성의 날(5. 21), 환경의 날(6. 5), 아동노동 반대(6. 12), 평화의 날(9. 21), 빈곤퇴치의 날(10. 17), 인권의 날(12. 10) 등

도에 전문기관 위탁연수 과정은 집합연수(15시간) 4회, 원격연수(15시간) 1회로 계획하고 있다. 운영방식은 강의식 외에 토론, 실습, 현장 방문 등 참여식 연수이며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유네스코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등 전문기관에 위탁·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집합연수로써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세계시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학교 관리자 대상 과정,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 강화 과정 그리고 일반교사 대상으로 세계시민성 함양 및 수업지도안 개발 등 교과 적용을 위한 과정을 진행하고 원격연수로써 모든 교원을 대상으로 세계시민의식 함양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한다. 2017년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60명을 대상으로 4월에 실시한 역량 강화 직무연수 교과목 및 편성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2017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 강화 직무연수 운영 계획(안)

과목	교수요목
활동 중심의 세계시민교육 인식	· 세계시민교육 내면화를 위한 활동
세계시민교육의 개념과 배경	· 세계시민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역량
세계시민교육 주제	· 글로벌 시스템의 이해 · 문화 다양성과 평화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인권
세계시민교육 교수학습방법	· 협력적 소통을 위한 토론 수업 · 변혁적 교수법 안내
교실에서의 세계시민교육	· 초/중등별 세계시민교육 사례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세계시민교육 실습	· 세계시민교육 연계 가능 장소 답사 및 수업과 연계
세계시민교육 적용 사례 공유	· 활동 내용 정리 및 발표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7e)

2)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 (연구학교, 특별지원학교) 공모 운영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의 현장수업 및 학교 활동 내 실제적 실현 방안 연구 및 일반 학교로의 확산 등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정책학교 (연구학교, 특별지원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학교별 (교과별)로 교육과정 재구성 블록수업 운영 등 활동 중점 추진, 세계시민교육 취지에 맞는 진로, 봉사, 동아리 활동 편성·운영, 세계시민교육 인정교과서 활용, 교육공동체의 세계시민성 함양 및 공감대 확산 활동, 자율연수, 학생·학부모 대상 특강, 캠페인, 모의유엔총회, 독서토론대회 등을 진행한다.

〈표 5〉 연구학교 및 특별지원학교 주요 지원 사항

	연구학교	특별지원학교
기간	2017.3.1 ~ 2019.2.28 (2년)	2017.3.1 ~ 2018.2.28 (1년)
학교 수	3교(초 2, 중 1)	10교
예산지원	학교당 1,000만 원~2,000만 원	학교당 1,000만 원
가산점	있음	없음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7d), p.8

3) 유네스코학교와 연계 학생 체험중심의 세계시민교육 운영

유네스코학교 네트워크(UNESCO Associated Schools Project Network)는 교육·과학·문화 발전을 도모하는 유엔 전문기구인 유네스코가 지정한 전 세계 학교들의 네트워크다. 2015년 기준으로 전 세계 187개국 10,000여개 학교가 가입해 있다. 우리나라는 1961년 4개교를 시작으로 2016년 전국 579교, 서울지역은 68교 (초 16, 중 26, 고 26)가 가입해 있다. 이들 학교는 평화, 인권, 국제이해, 지속가능발전 등 유네스코의 이념과 활동을 가르치고 실천을 장려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협업을 통해 유네스코 이념의 학교 현장에서의 확산, 다른 유네스코학교 간 교류를 통해 지속가능한 우호적 협력 기반 조성 및 단위 학교 교과과정 및 지역별 프로그램과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세계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유네스코학교 가입학교 확대 추진 (2015년 44교, 2016년 68교), 유네스코학교 활동비 지원, 서울지역 유네스코학교 활동 사례집 학교 배부, 신규가입학교 오리엔테이션 및 지역협의회 운영, 학생 해외 체험 프로그램 운영, 유네스코학교 학생 합동워크숍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고등학생 세계시민교육 캠프(2017.1.23.~1.25)를 유네스코평화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바 있다. 45개교 고교생 91명 참여하여 인권과 문화의 다양성 등 세계시민교육의 기본가치를 주제로 탈북민의 남한 정착경험을 통한 국내 탈북민 인권, 기후변화와 국제 불평등 주제 강연, 경기도 나눔의 집 방문 및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 견학, 조별 발표 등으로 진행한 바 있다. 유네스코학교는 학교별 계획에 따라 일반 학교보다는 보다 다양한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유엔의 우선과제,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와 인권, 문화 간 학습, 공정여행 등 학습주제를 배우고 실천하고 있다.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3.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1) 전문가, 교원 협조 체제 구축으로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증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및 교원 분과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로 세계시민교육 정책 자문단을 구성 (7~10인)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전문가 또는 업무담당교원을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분과를 구성하고 있다.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유네스코학교 교원, 연구학교·특별지원학교 교원, 학습동아리 대표교사가 참여하여 세계시민교육 방향, 내용, 체계 정립을 위한 의견 교환 및 교류, 컨설팅 지원,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2) 세계시민교육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 실시 기관, 주한 외국 공관 등이 참여하여 학교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교류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심 활동은 교원 연수 및 세계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주한 외교관 초청 특강, 해외 자매학교와의 교류 등이다. 2016 서울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총 254교에서 해외 학교와 자매결연하여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외국 519교 복수 교류) 교류하고 있다.

또한, 정규 교육과정 밖에서 학교와 다양한 전문기관 연계 활동으로는 학교급식과 관련한 맛있는 세계시민교육, 기아체험, 잔반 줄이기, 해외아동 돕기 기부활동, 세계 민속놀이 체험, 학부모 연수 및 현장체험, UN 기념일 알리기(홈페이지 등) 등이 있다. NGO와 협력하여 나눔교육 및 국제구호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데 그 기관으로는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아름다운커피 (Beautiful Coffee), 세이브더칠드런(Save the Children), 아프리카아시아난민교육후원회 (Africa Asia Development Relief Foundation, ADRF),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호이 (Hope is Education, HoE), 세계시민교육연구소 등이 있다.

4. 다문화교육 주요 과제와 실제

서울시교육청은 다문화교육 (문화 다양성 인식, 소통, 상호존중교육)이 세계시민성 함양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시교육청의 다문화교육 지원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방법은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원,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의 통합교육 및 모든 학생의 문화 다양성 존중 교육에 맞추어져 있다.

1) 우리나라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최근에는 다양한 이유로 우리나라로 이주해오는 외국인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1세대 국제결혼 이주 여성과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이주 2세대 및 자국의 친족의 국내 입국 등으로 우리 사회 구성원의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양화되고 있으며 그 자녀의 동반 입국 및 출생에 따른 다문화 학생들의 비율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최근 10년 동안 3배 이상 증가하여 전체 한국 인구의 3.4%에 해당한다(2006년 536,627명에서 2015년 1,711,013명으로 증가)²⁾. 한편 서울시교육청의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초·중·고에 재학 중인 서울의 다문화학생(국제결혼·외국인가정자녀)은 총13,924명으로 전체 재학생의 1.42% 차지하고 있고 서울지역 다문화학생의 24%는 서남권(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등)에 거주하며, 46%는 서부 및 4개 지역(중부·강서양천·동작관악·동부)에 분포하고 있다.

〈표 6〉 2016년 서울시 다문화학생 현황

유형 \ 학생수		계	학교급(명)			
			초등	중등	고등	각종
국제결혼 가정자녀	국내출생	8,673	6,518	1,252	861	42
	중도입국	1,644	1,038	328	212	66
외국인가정 자녀		3,607	2,670	549	334	54
계 (비율)		13,924 (100%)	10,226 (73.4%)	2,129 (15.3%)	1,407 (10.1%)	162 (1.2%)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7a)

2) 다문화가족 및 학생교육 법적·제도적 지원 관련 규정

최근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로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다문화감수성 제고 및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은 그 어느 시기보다 매우 중요하다. 관련 해서 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생활정보제공 및 교육지원) ①, ②항은 결혼이민자 등에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 정보, 적응교육, 한국어 교육과 방문교육, 원격교육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제공을 규정한다. 그리고 동법 제10조(아동 보육·교육) ①, ②, ③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 보육·교육 시 다문화 아동 차별

2) 행정자치부는 “외국인주민수 171만명, 총인구대비 3.4%” 보도자료 (2016.11.14.)에서 ‘2015.11.1.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을 확인하기 바란다.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6680) (접속일: 2017.09.15.).

금지, 교육지원 대책 및 취학 전 보육 및 방과후교육 등 지원 규정, 한국어 및 부 (또는 모)의 모국어 언어 능력 발달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는 귀국 학생 및 다문화학생 등의 입학 및 전학 지원을 위한 특별학급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지원법과 규정은 1948년의 세계인권선언과 1989년 유엔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의 취지 및 방향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6조 ①, ②항은 모든 사람의 교육받을 권리(최소한 초등 및 기초단계 무상교육)와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종교 집단들 사이의 이해, 관용 및 우의를 증진하고 평화유지를 위한 유엔의 활동의 촉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8조는 아동의 생존과 보호, 발달, 참여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3) 다문화학생 밀집 학교 중심으로 맞춤형 교육 지원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계획』에서 성숙한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교육정책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다중의 언어·문화·공존·세계역량 등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 편성 운영 등 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다문화 세계화시대에 맞춰 일반학생과 다문화학생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이중 언어교육 지원 및 모든 학생에게 다름을 재능으로, 차이를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는 다문화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중심으로 다수의 정책지원학교 선정하여 운영하는 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6년 유·초·중·고 총 80교에 (유치원 2, 초 71, 중 6, 고 1) 다문화 언어강사를 배치하여 다문화학생 학교생활 적응, 정체성, 한국어 및 학습지도와 문화교육 지원하고 있다. 다문화언어 강사 자격은 별도의 양성과정(서울교대 연수과정, 연간 900시간)을 수료한 원어민 강사로서 출신 국가별 인원은 중국 36명, 몽골 15명, 일본 14명, 베트남 4명, 필리핀 4명, 우즈베키스탄 3명, 기타 9명 등이다.

둘째, 2016년부터 총 15교 (초 13, 중 2)의 이중언어교실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중언어교실 강사의 기본 자격은 한국인으로 대졸 이상의 학력으로 공인외국어 능력이 상급 이상인 자다. 중심 활동은 중국어, 베트남어 등 다문화 모어(母語) 사용 학생의 교과 수업 지원,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방과후학교에 (중국어) 기반 수업과 활동, 이중언어교실에서 일반학생의 다문화어 습득 기회 확대 및 다문화학생과의 통합교육 실현을 지원하는데 있다.

셋째, 중도입국 다문화학생 대상으로 특별학급을 설치한 다문화예비학교 총 13교(초 8, 중 3, 고 2)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중도입국 다문화학생들은 일반 정규학교에 배치되기 전에 일정 기간 (초등은 최대 6개월, 중등은 최대 2학기) 동안 특별학급에서 공부한다. 한국어(Korean

as a Second Language, KSL) 교육과정을 포함한 수준별 지도를 통하여 한국어 및 한국문화 이해 등으로 초기 적응교육을 받을 수 있다.

넷째,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의 동반 성장을 위한 다문화중점학교 총 18교 (초 10, 중 5, 고 3)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문화학생과 일반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방과후학교, 토요 프로그램, 방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이중언어교육,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다문화 이해교육 등을 실시한다.

다섯째, 다양한 문화교육, 외국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글로벌문화학교 총 16교 (초 10, 중 3, 고 3)를 지정하여 운영한다. 해당 학교는 외국 공관(중국, 베트남, 러시아, 필리핀 등) 등과 업무협약을 맺고 주한 외국 대사(영사) 등 초청 특강 및 대화·소통의 시간을 운영하고 다문화교육, 다문화 반 편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동등한 다름’에 대한 상호 존중 의식을 함양한다.

여섯째, 다문화학생 직업교육 지원기관 4교 (산업정보학교 및 특성화고등학교)를 운영한다. 다문화학생이 희망하는 직업 기회 제공으로 참가 학생의 자립심 향상 및 진로 탐색 및 직업 세계를 조기 체험, 학교 적응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한다. 운영 프로그램으로 제과·제빵, 미용, 조리, 바리스타, 주얼리, 네일아트, 디자인, IT 등이 있다.

4) 모든 학생 대상 다문화교육 교원역량 강화

여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다문화 수용성 지수(Korean Multi-culturalism Inventory, KMCI)’는 일반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교육부, 2017). 2013년 조사에서 성인 응답자의 36%만이 다양한 ‘인종·종교·문화가 공존하는 것이 좋다.’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였다(유럽 18개국의 찬성 비율 74%). 그러나 전체적으로 성인과 청소년 모두 수용성 지수가 조금씩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 2013년 조사에서 성인 51.17점, 청소년 60.12점에서 2015년 조사에서 성인 53.9점, 청소년 67.6점으로 향상되었다. 실제로 다문화 반편견 교육으로 ‘동등한 다름’에 대한 상호 존중 의식은 함양될 수 있다. 다문화이해교육을 받은 학생의 다문화 수용도는 개선되고 있다. 2015년 전국 150교의 학생 대상 통계조사에서 다문화 수용도는 교육에 참여하기 이전의 78.25점에서 참여한 이후 81.34점으로 향상되었다.

시교육청은 교원의 다문화학생 인식·이해 제고 및 다문화학생 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연수 전문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직무연수를 지원하고 있다. 일반교원 대상으로 다문화학생의 특성, 관련 정책과 사업, 다문화학생 지원, 학급 내 다문화 수용성 증진 방안을 실시하며 다문화 교육 선도교원 및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직무연수 등 기초, 심화, 전문가 양성과정 등을 개설하고 있다. 또한, 현장교원·다문화교육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다문화교육지원단을 구성하여 다문화교육 선도교원을 육성하고 있으며 다문화교과교육연구회(교사연구회)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5. 학교 현장의 세계시민교육 우수 사례

1) 학교 단위 세계시민교육 교원 직무연수 실시

교육청 주관 집합 직무연수, 자격연수 과정, 전문기관의 원격연수 과정과는 별도로 개별 학교 단위로 학교 안에서 세계시민교육 연수를 기획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한다. 2016년 서울 안천초등학교는 세계시민교육의 이해와 실재를 주제로 2016년 6월 9일부터 7월 6일까지 기간 중에 총 20차시 직무연수를 실시하였다. 자발적인 희망으로 재직 교사의 약 92%가 참가하였으며 그 내용은 세계시민교육 필요성, 평화로운 공동체, 생태탐방, 국제기구와 유네스코의 이해, 세계화 문제, 학습의 세계시민교육 등이다.

2)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으로 편성

학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세계시민교육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기관과 연계하여 학년별로 연간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다르게 편성하여 모든 학생이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교도 있다.

〈표 7〉 모든 학생이 참여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2016, 신수중학교)

	교육과정	주요내용		연계기관
1학년	정신건강 및 자아 이해 (1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나/소중한 나! · 오늘 나의 기분은? · 우린 달라요~ · 내 마음의 신호등 · 톡톡 Tok · 한 박자 쉬고 · 컴퓨터가 제일 좋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런 친구 어때? · 갈등 타파! · 꿈지락 꿈지락 ~ · 자꾸 짜증이 나요 · 오늘도 용수철 · 휴머니즘 	· 서울시정신보건센터
	행복교육 (17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이란 무엇인가? · 감사하기 · 목표 세우기 · 음미하기 · 관계 돈독히 하기 · 용서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점 바꾸기 · 비교하지 않기 · 몰입하기 · 나누고 베풀기 · 행복한 내 인생 설계 	·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소
2학년	지속가능발전교육 (12차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한 식생활~ · 전기 절약 · EM 활용 수질 정화 · 지구온난화/ · 환경신문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의 다양성 보전 · 지속가능한 소비 · 강과 인간 · 적정기술 · 우리가 할 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에너지수호천사단 · 농협 · 굿네이버스
3학년	문화 다양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의 개념~ · 세계의 다양한 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 주위의 이웃들 · 지금은 지구촌 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네스코 · 영국문화원

	교육과정	주요내용		연계기관
	존중 (12차시)	· 함께 살아가는 세계~	· 지구촌 대통령 선거	· 희망 브리지 · 마포평생 학습관
	인권과 평화 (12차시)	· 서로 존중하는 우리 · 우리나라 인권 · 나의 인권감수성은? · 세계화와 함께 살기 · 인권과 평화 한 걸음	· 세계인권 · 교실에서 실천하는 인권 보호 · 평화란 무엇인가? · 가난한 나라 친구들의 고통	

출처: 신수중학교 (2016)

3)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중점 프로그램 실천

학교 자체의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을 주제별로 묶어 교직원 연수를 실시하고 모든 교직원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방향에서 세계시민교육을 진행한 학교도 있다. 2016년 혜화여고의 경우 인권, 평화, 문화 다양성, 국제협력, 환경, 경제정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학교의 연간 세계시민교육활동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표 8〉 세계시민교육 영역별 중점 실천 프로그램 연수자료 (2016, 혜화여고)

인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특강 2회 ❖ 인권동아리(굿프렌즈) 활동 지원 ❖ 혜화 인권대상 실시 ❖ 세계시민 이슈 관련 캠페인(동아리연계) 	평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라사랑 교육 3회 (독도 · 통일교육 연계) ❖ 글로벌 리더스캠프 ❖ 유네스코학교 연계활동 ❖ 세계시민활동 현장르포 ❖ 독도필통만들기캠페인 	문화 다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고유문화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사탐구부 활동 연계 ❖ 다문화 이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문화체험데이 – 세계음식체험의날(급식) –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국제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시민교육 3회 ❖ 글로벌 서포터즈 활동 ❖ 혜화 모의유엔총회 ❖ 세계시민포트폴리오 ❖ 봉사활동 실시 (신생아 모자뜨기 등) 	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혜화 빈 그릇 나눔 ❖ 바자회 실시 (글로벌 서포터즈 연계) ❖ SDG 연구 활동 지원 (학술제 연계) ❖ 관련 동아리 활동지원 	경제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무역 실천 및 빈부격차 해소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동아리 활동 지원 – 연구 활동 지원 (학술제 연계)

출처: 혜화여자고등학교 (2016)

제I장

개발협력이슈

제II장

제III장

IV. 국제개발기관의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접근 및 확산을 위한 제언

1. 학교의 나눔교육 및 국제구호활동 중심으로 접근 추세

최근 국제개발기관의 공교육 연계·지원활동은 다양하다. 기관별 전문 강사가 학교를 방문하여 학생, 교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강을 하는 경우도 있고 NGO들의 교재를 활용해서 관련 교과에서 6월 12일 아동노동 반대의 날, 10월 16일 세계 식량의 날 수업 등을 활용한 수업을 진행한 학교도 있다. 또는 세계시민교육 학습동아리 교원을 대상으로 보다 전문화된 참여활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도 한다.

많은 학교에서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빈곤한 지역과 국가의 기아 문제를 생각하고 해결을 위한 작은 실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면 1단계로 전 지구적인 기아 문제를 인식하는 캠페인, 2단계로 기아 고통을 공감하고 12시간 정도의 기아체험을 하고 3단계로 해결 실천의 방안으로 재해 이재민 긴급 구호식 제공, 자발적 모금 운동, 아프리카 염소 보내기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서울시교육청 협약기관인 굿네이버스와 월드비전의 나눔교육 및 국제구호활동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 9〉 2015년 서울시 나눔교육 및 국제구호활동 참여 현황

구분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참가 학교수	654교	663교
모금액	937백만 원	672백만 원
해외아동 지원국	4국(남수단, 필리핀, 인도네시아, 네팔)	31국 - 아시아 10국 (캄보디아 등) - 아프리카 15국 (르완다 등) - 동유럽 6국 (보스니아 등)

출처: 서울시교육청 (2017d)

2. 유네스코학교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 핵심 주제 지속 추진

2016년 서울 유네스코학교는 68교 (초 16, 중 26, 고 26)이다. 이들 학교는 유네스코와의 연계 활동과 실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평화와 국제이해, 지속가능발전, 국제 협력과 관련된 교육 콘텐츠, 교수학습법, 학습 자료의 개발에 기여하는 ‘시범학교(pilot schools)’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17년 유네스코학교 운영 지원 계획』 수립 시 유네스코한국위원회와 협력하여

유네스코학교의 세계시민교육활동이 다양한 수준으로 다른 학교에도 전파될 수 있도록 선도교원과 유네스코학교 담당교원의 연수, 컨퍼런스, 정보교환, 활동 사례집 보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유네스코학교는 학교별로 학급, 학년, 교과, 동아리 등 다양한 단위로 추진할 수도 있으나, 학교 구성원 모두가 학습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학교는 유네스코의 4대 핵심 주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해 관련된 학습과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한다.

〈표 10〉 세계시민교육 학습주제별 연차 추진 (2016, 서울 안천초)

유네스코학교 핵심주제		세계시민교육 관련 요소	주요 내용
[1년차] 2016 학년도 주제	UN 우선과제 (UN Priorities)	국제기구	UN을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이해와 목표 달성 가능성에 대한 고민
		UN기념일	UN이 지정한 세계기념일
		세계문제	지역사회와 관계가 있는 세계문제(Global Issue) 발견 및 해결을 위한 실천방안 모색
[2년차] 2017학년도 주제		평화와 인권(Peace and Human Rights)	
[3년차] 2018학년도 주제		지속가능발전교육(ESD)	
[4년차] 2019학년도 주제		문화간 학습(Intercultural Learning)	

출처: 안천초등학교 (2016)

3. 개발교육기관의 공교육 내 세계시민교육 접근 및 확산을 위한 제언

세계시민교육은 미래지향적이고 필연적인 방향이다. 최근 공교육 내에서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교원의 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인식과 활동 수준은 차이가 있으며 교원의 행정 업무 부담과 수업시수 한계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고, 특목고처럼 학교급별 그리고 학교 유형별 차이도 존재한다. 10개국 이상의 다양한 국가 배경의 학생들이 재학하는 학교, 탈북학생 수가 많은 학교, 다문화학생 수가 재학생의 50%를 넘는 초등학교도 다수 있다.

세계시민교육이 의미있게 확산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교과와 비교과 활동에서 세계시민교육을 다르게 디자인하고 재구성하는 교사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청은 교사 개개인이 서로 세계시민교육 역량을 나누고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을 함께 디자인할 수 있도록 교원 연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향에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의 적극적인 소통과 협약이 필요하다. 학교 안과 밖에서의 교원연수 과정,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한 콘텐츠와 프로그램 개발, 이를 학교에서 활용하는 방법 등을 함께 협의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개발교육기관의 공교육 내 지원활동은 주로 학교의 나눔교육과 긴급구호활동과 연계하여 많이 이루어져 왔다.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주제가 확산되기 위해서는 그간의 활동성과와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일부 학교에서는 기부 중심적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좀 더 활동형 수업자료를 필요로 하는 학교도 있고, 관심 있는 교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강의, 캠프 등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는 세계시민교육기관의 전문 강사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높은 편이다.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은 그간의 교원과 학생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검토해 주기를 제언한다.

1) 세계시민교육 확산을 위한 유기적 협력 네트워킹 지속적 강화

서울시교육청은 세계시민교육의 추진 방향 설정, 주요 정책 수립 및 확산을 위해 세계시민교육 전문가로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선도교사, 정책지원학교(연구학교, 특별지원학교, 유네스코학교 등) 교원, 다문화교육 지원단, 관련 연구회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세계시민교육 본과를 구성하여 연수, 협의회, 컨퍼런스 등을 진행 중에 있다.

첫째, 다양한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이 참여하는 학교지원 협의체가 있으면 좋겠다. 학교는 국제협력 전문기관별 주요 활동 분야에 대해 잘 모를 수 있다. 세계시민교육, 글로벌시민교육, 국제개발협력교육, 지구시민교육, 사회적경제교육, 나눔교육, 인성나눔교육, 아동권리교육, 다문화인식개선교육, 공정무역교육, 아프리카 세계시민교육, 글로벌리더교육 등 다른 듯 비슷한 듯 사용하는 용어도 다양하다. 전문기관 간 협의체를 통해 핵심 사업, 학교연계 분야, 학교급별 프로그램 등을 통합적으로 학교에 홍보하면 좋겠다.

둘째, 국가 교육과정 개정 시 세계시민성 함양을 위해 교과목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교육과정 개정 관련 공청회 등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교과서에 담을 세계시민교육 방향과 중심 내용을 개진하고 다양한 전문기관과 교육부, 교육청, 국가교육과정정보센터, 학교 간 협의체 등과 상시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를 제안한다.

셋째, 전문기관별 단독으로 운영하는 교원의 세계시민의식 연수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함께 운영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공동 개발할 수도

있다. 연수기관별로 자신이 있는 학습주제를 모아서 연계하여 편성할 수도 있고 집합연수와 원격연수를 혼합할 수도 있다. 2개 이상의 전문기관이 연합하여 교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별도의 연수 장소에서 또는 2개의 장소에서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2) 일반 학교의 세계시민교육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첫째, 서울시교육청과 학교지원 컨설팅장학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의 자율경영 및 교육역량 제고를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학교 스스로 필요한 컨설팅장학 주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는 과정을 돕고 있다. 특히 세계시민교육도 주제 중 하나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다. 개발교육전문기관은 일반 학교에 세계시민교육 컨설팅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할 수 있다. 학교가 희망하는 세계시민교육 관련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컨설팅, 세계시민교육 관련 인정교과서 및 개발교육기관 학습 자료 활용방안 등을 함께 협의할 수 있다.

둘째, 아울러 전문기관별로 교원과 학생들의 해외 세계시민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개발도상국가 대상으로 일정 기간 방문하여 진행하는 교육봉사, 공정무역 체험 프로그램 등은 여전히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전문기관이 연중 운영하는 개발도상국의 문화 체험관 방문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방학 기간 세계시민학교 운영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개별 학교에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도 있다.

셋째, 일부 학교의 관심 있는 교원은 온-오프라인으로 국내·외 학교와 글로벌 이슈에 대한 다양한 수업 방법 교류·지원을 필요로 할 수 있다. 해외 유네스코학교와 자매결연학교 등과 교류 외에도 전문기관의 해외 관련 개발기관, 국제기구 또는 해외 학교와의 교류 경험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국제협력, 평화, 다양성 존중 등에 대한 배움은 교실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 행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문기관은 학생들이 스스로 지구친화적인 생활 실천을 습관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학생자치회 캠페인, 토론, 동아리 활동 전개, 지속적인 홍보방법 등을 지원할 수도 있다.

학교와 개발협력기관의 교류와 협력이 중요하다. 교육의 목적은 학생의 의미 있는 변화와 성장이다. 모든 학생이 인류공동체 일원으로서 인류 보편의 가치를 존중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지구촌 문제를 이해하고 책임감을 공유하며 상생·협력·해결하는 행동에 참여하는 세계시민으로 성장하기를 희망한다.

제I장

개발
협력
이슈

제II장

제III장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17.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수원: 경기도교육청.
- 교육부. 2017.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안)』. 세종: 교육부.
- 서울시교육청. 2016. 『교실에서 만나는 세계시민교육』. 서울: 서울시교육청.
- _____. 2017a.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기본 계획(안)』. 서울: 서울시교육청.
- _____. 2017c. 『2017 유네스코학교 운영 지원 계획(안)』. 서울: 서울시교육청.
- _____. 2017d. 『2017 세계시민교육 기본 계획(안)』. 서울: 서울시교육청.
- _____. 2017e. 『세계시민교육 선도교사 역량강화 직무연수 운영 계획』. 서울: 서울시교육청.
- 안천초등학교. 2016. 『2016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운영 보고서』. 서울: 서울시교육청.
- 신수중학교. 2016. 『2016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운영 보고서』. 서울: 서울시교육청.
- 혜화여자고등학교. 2016. 『2016 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 운영 보고서』. 서울: 서울시교육청.
-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수 171만명, 총인구대비 3.4%” 보도자료 (2016.11.14.)
(http://www.moi.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56680) (접속일: 2017.09.15.).